<6월12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율법도, 십자가도 향해야 할 곳, 오직 주님!"

12 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 먼 사람이면서 눈 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태복음서 15:12~14)**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충돌은 율법에 관한 첨예한 다른 이해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람이 지켜야할 하나님이 주신 규칙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해결, 규칙보다 높은 이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들은 눈 먼 사람이면서, 눈 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의의는 여러 차례 나누었듯이, 윤리와 도덕성에 있기 이전에 그 권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크게는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법을 세우실 권한과 지혜와 지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것을 만드시고 명하시며, 의로운 것과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출애굽기서 20:1~2 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중요한 개념을 확인해 봅니다. 1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2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서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참함과 더러움과 종 된 것—고역과 환난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가장 큰 개념은 '무질서와 억압과 얽매임과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한 상황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중에 한 계명을 보면, 8 절 이하에 안식일 계명이 주어집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육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게 봅시다.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세계, 물질세계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신과 문화와 역사와 영혼과 영원을 만드시며,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와 복을 만드시는 분! 절대적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이 규칙에 불과했고, 자신들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율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로 나누고, 지킨 자로서 자랑거리를 삼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서 15 장의 싸움이 그것이었습니다. '식사할 때 손을 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의 중요한 의미, 율법을 주신 의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하는데 있고,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에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말씀,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심고 뽑으시며, 하나님 없이는 모두가 소경된 자일 수밖에 없다'입니다.

성도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 의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선함과 의로움과 복됨과 영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차원에서 율법과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율법의 이 가르침, 율법의 위치(중심 의의)를 십자가와 충돌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로마서 3:21~26 을 보시면,**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곳입니다. 출애굽기서 20 장에서 율법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선하시고 복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실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 복됨이 나타나며,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 **로마서 3:27 에서,** '27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리고 31 절에서,** '31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로 이어져 결국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경된 우릴 인도하시는 주님!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성취하십시다.